

#### 4.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언의 성취<sup>1)</sup>

##### 1)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해(CE 30)와 낮과 밤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3년 전인 AD 27년경, 즉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여기 30세쯤의 의미는 30세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30대를 의미한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눅3:23).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하셨다면 32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5세 때인 AD 30년 유월절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이 날은 AD 30년 4월 3일(Nisan 14, 4030 AM) 수요일이다.<sup>2)</sup>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마12:40)

한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도 나름대로 이유 있는 추측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유대인에게는 보통의 토요일 안식일 외에 유월절과 연관된 또 다른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다. **High Day로 명명된 이 날**은 무교절 기간 첫날에 지켜진다.(출12:16;레23:3) 이 날은 유대력으로 Nisan월15일 목요일인데 그레고리안력으로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시작된다(요 19:14). 때문에 유월절인 목요일의 예비일(유대력 14일 수요일 오후 3시), 즉 양을 잡았던 날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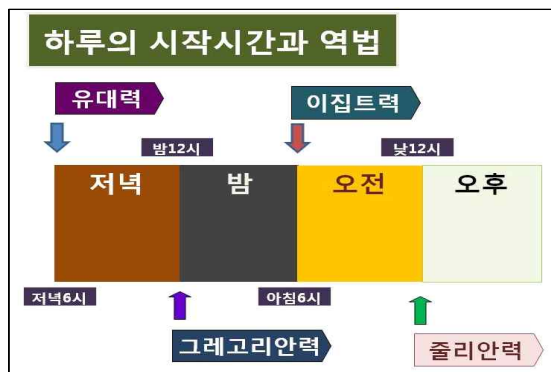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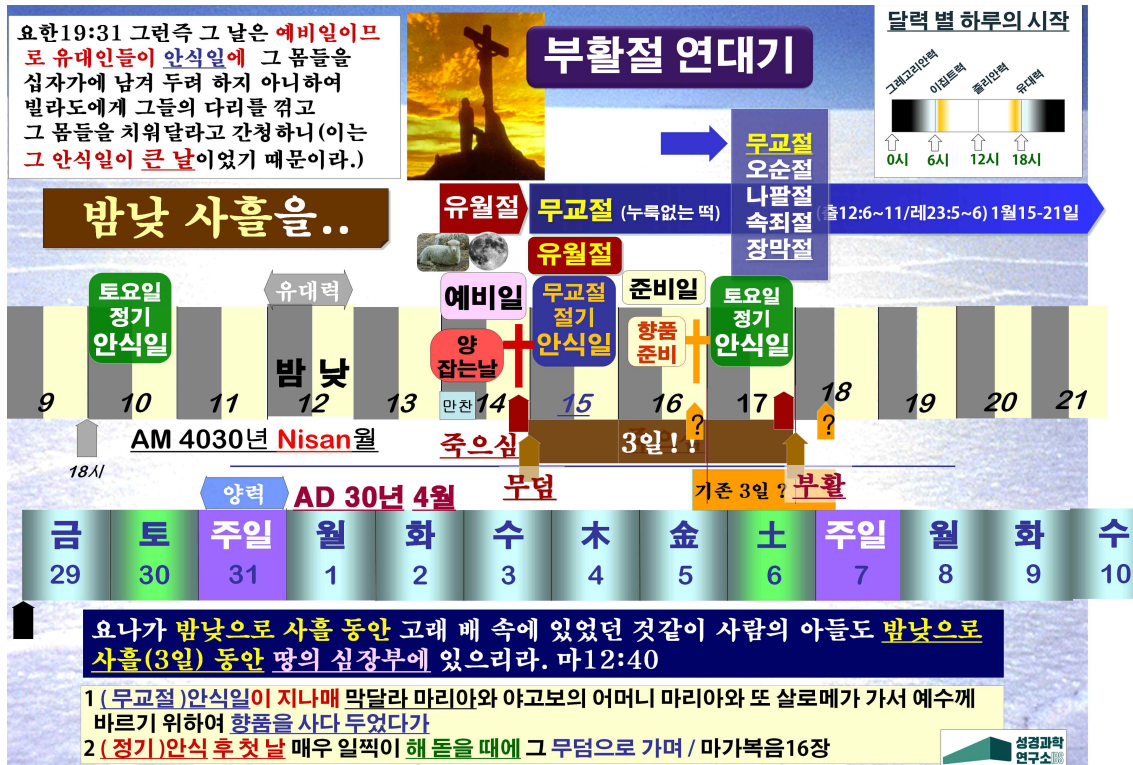
그림 1 달력별 하루의 시작 시간

1) 양승원, [성경과학과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13장 참고  
 2) 기존 성경연대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금요일로 주장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니산월 17일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것으로 보아 이들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무덤에 계셨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력으로 Nisan월 10일(출12:3) 토요일에 선택 되셨는데 요한 복음12장 1절에서 보듯이 금요일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셨다가 토요일, 즉 Nisan월 10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이다(요12:12).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였다.

“유월절 옛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요12:1,12)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력으로 Nisan월14일 제 구시(4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쯤), 즉 무교절(유대력 15일)이 시작되는 때 바로 직전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6시 쯤 안장된 뒤에 밤낮 3일을 지난 후 니산 월 17일 오후 3시 쯤 부활하시어 해질 무렵까지 무덤에 3일 밤낮을 무덤에 있다가 니산월 18일 저녁 6시 이후에 (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료를 준비하고 난 후 안식일이 있었던 것과 마가복음 16장에서 여인들이 향료를 사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눅23:55-56)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 날 매우 일찌기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막16:1-2)

때문에 그 주에는 **분명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급했듯이 마가복음의 안식일은 유월절이 있는 날이고 누가복음의 안식일은 보통의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이 두 날 사이 즉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유월절 안식일과 보통의 안식일 사이에)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요일 오후 3시쯤이며, 6시쯤에 무덤에 안치되어 음부로 내려가 목요일 6시, 금요일 6시, 토요일 6시가 지나서 밤낮 3일이 지난 뒤 부활하셨던 것이다.

여기에서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부활이라면 성경에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요20:1). 그러나 마리아가 이른 아침, 즉 아직 어두울 때에 그 곳에 도착하기 전 이미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날이 주의 첫날 직전인 AM.4030년 Nisan월 17일(BC.30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직전에서 Nisan월 18일(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부활 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신 것은 그분이 가셨던 땅의 심장이란 낙원(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있는(눅23:43) 땅의 중심이기에 그 분은 땅의 심장에 계셨던 3일은 무덤이 아닌 음부(스올)를 언급하신 것과도 일치한다.

다음 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부터 유대인 대량학살을 지도했던 독일인 전범 10인이 뉘른베르그(Nuremberg) 국제전범 재판이후 교수형에 처해진 날이 초막절인 티쉬리월 21일이자 1946년 10월 16일 수요일(01시11분-02시57분)까지의 기간을 달력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여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700,000 **일(100,000 주)**이 된다.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이 30년 4월 3일 수요일(09시 십자가에 매달림, 15시 운명하심, 18시 무덤에 안장)임을 더욱 강하게 지지해준다.

**Convert a date**

Today < Century > < Year > < Month > < Day >

Gregorian Date: 30 April 3 Normal year Time: 12:00:00 Weekday: Wednesday

---

Julian Date: 30 April 5 Normal year Wednesday

Julian day: 1732110 / Modified Julian Day: -667890.5

---

Hebrew Date: 3790 Nisan 15 / Common regular (354 days) Hebrew month: ניסן

그림 3 예수의 십자가 처형일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두 날짜를 비교해보면 700,000일의 차이가 난다;  $2432109.704 - 1732110 = 700,000$ 일

**Convert a date**

Today < Century > < Year > < Month > < Day >

Gregorian Date: 1946 October 16 Normal year Time: 4:54:00 Weekday: Wednesday

---

Julian Date: 1946 October 3 Normal year Wednesday

Julian day: 2432109.7041666666 / Modified Julian Day: 32109.204166666605

---

Hebrew Date: 5707 Tishri 21 / Common regular (354 days) Hebrew month: תשרי

그림 4 홀로코스트 전범재판일 AD 1946년 10월 16일 수요일

표 1 예수의 죽음에서 전범재판 처형일 초막절까지 100,000주

### 2) 40년 뒤 예루살렘 성전의 2차 파괴(AD 70년)

예수님의 부활 사건(Nisan월 18일)이후 40일 뒤에 승천하신다. 승천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Iyyar월 28일이기도하다. 이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날은 오순절로 예수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의 언어로 선포가 된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만다. 이는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의 성취로 40년 만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3)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당신의 비전으로 보셨고 온 세상의 구원사명을 갖고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그 비전을 이루셨다. 이는 가장 신실하신 종이자 하나님이심을 증거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친히 증거 하셨고, 요나서의 기록대로 모든 이방민족까지도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막14:2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

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10)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자와 같이 날이나 달과 연관된 별자리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집착하여 그날과 주간을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갈 4:8-11).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성일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17).

오히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씨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해 저버린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연대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 섭리와 숨씨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찬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성경연대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인은 창조세계관으로 모든 역사와 사물, 자연과 과학을 바라봐야 하는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